

순창 강천산 관광객 급증

이번 주말 2만명 이상 방문 예상... 적극적 마케팅 효과

순창 강천산에 벚꽃 등이 만개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물하며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군은 지난 주말과 휴일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강천산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가치를 통해 강천산을 방문하기로 예약한 인원만 400여명이 넘어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2만명 이상이 강천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강천산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계절적 이유도 크지만 군이 강천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강천산 전 구간의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마진 상태. 또 강천산 입구인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유채꽃을 심어 강천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미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 트레인, 강천산 관광 성수기 다양한 계절별 정기·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또 계절별 농촌체험, 장류축제 등과 관광객을 연결하고 여행관계자 및 여행전문기자 펍투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강천산과 섬진강



강천산 현수교의 봄

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5월에 황새치 낚시와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해 강천산과 섬진강 홍보는 물론 참여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1000여명이다. 또 아빠와 함께하는 순창 체험여행을 추진해 가족이 함께 순창을 찾고 가족 관계도 복원하는 기회도 만들 계획이다. 관광안내소 센터 및 포토존 조성, 강천산 도보길 조성 등 하드웨어적 관광자원 개발도 추진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해마다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해줄 계획이다.

황순주 군수는 "강천산은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라며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강천산이 500만 관광객 유치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창 강천산은 메트스 여객에도 불구하고 10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솔바람권역 창조적마을’ 사업 추진

남원 농어촌공, 노노돌봄이센터 등 1단계 사업 착공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솔바람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살고싶고 즐겁고 건강한 솔바람권역'을 만들고자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로부터 위탁받아 38억원의 예산으로 덕과면 신양리와 만도리 일대의 솔바람권역에 노노돌봄이센터 건립 및 솔바람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6년

1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솔바람권역 소영호추진위원장은 노노돌봄이센터 건립을 통해 솔바람권역이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에서의 물모양이 될지 기대하고 있다며,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등 관련 기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범씨 소독·적기 못자리 설치 강조

임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도

임실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범씨 종자소독 및 적기 못자리 설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농 현장지도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종자에서 전염되는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종자소독을 당부했다.

범씨 소독 방법은 충실한 우량종자를 선택하고 물 20l를 기준으로 종자소독 약제인 '프로코라드' 10ml 또는 '이프로나졸' 40ml를 희석해 30℃에서 48시간 정도 소독하는 '침지소독'이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의 경우 60℃의 물 300l 당 범씨 30kg을 10

분간 담가두는 '온탕 침지 소독'이 효과적이다.

또한 범씨를 담근 후 30~32℃ 온도에서 2일 정도(썩길 1~2mm) 썩티우기를 실시하고, 육묘방법에 따라 적당한 파종량을 준수(종묘 기준 130g정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이앙기를 고려해 품종과 파종기를 결정하고 알맞은 상토를 준비해 적기 파종, 썩티우기, 물 관리 및 온도관리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및 농민농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씨소독 후 남은 용액은 석회나 퇴비, 흙을 넣어 정화한 다음 유히거나 퇴비사에 뿌려줘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용역 추진

남원시는 시내버스 노선 운행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버스 이용 감소, 버스재정 지원에 따른 시의 부담 가중, 지역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버스운영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 용역에서는 버스노선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지·간선제 버스노선 검토, 운송사업체의 경영악화 개선 및 시 외곽 주민들에게 적합한 시외 교통 수단 도입, 중·장기적 요금제

개선 방안 등 편리하고 최적화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용역을 바탕으로 분별별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버스운영체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을 들여 버스과 택시의 잠정 통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버스DRT) 일명 휠버스 1대를 4월부터 대강면 일원에 시범 운행한다.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적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순항 중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월락동 소재)이 운영 3개월째 6억 7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항 중이다.

지난 1월 21일 오픈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로컬푸드 매장 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제과점, 카페와 2층의 금융점포에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장이 마련되어 금융, 쇼핑, 휴식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이용횟수가 높으며, 신선 농산물 1일 유통원칙, 직장인들을 위한 오후 10시 운영을 위해 350여명의 로컬푸드 참여 농가와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8개월 간의 임시매장 운영이 업무 누수 방지와 로컬푸드 운영 체계 구축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한몫을 했다.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신선하고 저렴하여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금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1.320㎡)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가로등 번호판 부착

임실군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해 신설 및 이설을 비롯한 번호판 미부착 가로등을 대상으로 번호판 부착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로등 번호판 설치 사업'은 관내 5,500여개 가로등에 번호판을 부착해 신속한 위치파악과 고장 신고 및 유지 보수 편리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원활한 야간통행과 방법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램프와 용량 등 정확한 이력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신고체계와 신속하고 정확한 가로등 민원신고 처리를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제 풍물장터, 만남의 장터로

춘향제 행사 기간 남원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풍물장터가 올해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만남의 장터로 전환한다.

풍물장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농·특산물 코너를 광안루 앞 도로에 배치하여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요원둔치에는 읍면동 음식코너, 공산품코너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음식코너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저렴한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춘향제 풍물장터는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읍면동 만남의 장터 10여동, 외주업체 공산품코너 100동 규모로 사랑의 광장 앞 요원둔치에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춘향제 풍물장터의 음식코너 운영은 그동안 외주업체와 읍면동 음식코너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주업체 음식부스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읍면동 음식코너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메뉴를 읍면동 특성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정직한 가격으로 남원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2개 마을 어촌특화발전사업 선정

심원 하전 '어촌특화' · 상하 장호 '어촌체험 역량강화' ... 국비 2500만원씩 지원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과 상하면 장호마을이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발전사업에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자연, 경관, 문화 등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융합·연계한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진행했으며, 심원 하전마을이 '어촌특화 역량강화'에, 상하 장호마을이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컨설팅)'에 각각 선정됐다.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하전마을은 어촌마을 지원발굴, 특화사업 구상, 수산물가공·유통·마케팅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어촌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하반기 하전특화발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분야(가공, 유통, 마케팅 등) 교육과 병행한 분야별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완성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컨설팅)'에 선정된 장호마을은 어촌관광개발사업 고도화를 위해 인적지원, 관광·문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등 운영활성화를 지원받게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과 상하면 장호마을이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발전사업에 선정됐다. (하전마을)

됐다.

장호마을은 올해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조직 및 갈등관리, 축제와 문화상품, 주변자원 연계상품, 지원활용 상품, 홍보방안, 특산물브랜드화, 체험상품개발 등을 합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마을을 찾는 체험객의 만

족도 제고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 6차산업화 추진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람협의회가 탐사트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콘서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

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탐사트 습지도시란 탐사트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탐사트 협약이 인증되는 제도다.

탐사트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관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탐사트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람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탐사트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탐사트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 제공 및 습지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들여 탐사트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7월 5곳의 후보지 중 탐사트 습지도시 인증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